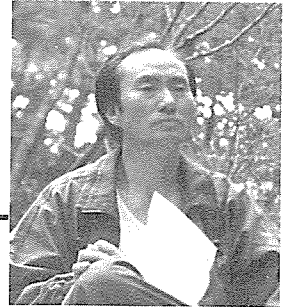


人文高의 과학실습 無意味 입시위주 교육제도 바뀌어야



오재용 <강원도 기린고교 교사>

교직에 몸을 담은 지도 어언 30여년, 앞으로 퇴직까지 남은 10여년보다 3배나 더 긴 세월을 교단에서 보냈지만 내세울만한 업적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

이번에 일선 교육현장에서 보고 느낀 과학교육의 현황을 제시할 기회를 얻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로 요약해보고자 한다. 지난 86년부터 3년여에 걸쳐 문교부 교구 품평위원으로 과학교구의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품평을 할 당시에도, 왜 저러한 교구들이 기준품목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의문이 나서, 당시 문교부의 전권 위임을 받아 작업을 주관하던 목창수 연구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질의해 봤으나, 시원스러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아직도 내 가슴속에는 교구 기준 품목의 설정이 외국의 것을 도입한 것으로, 많이 여과되고 수정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89년도엔 5차 교육과정 개편시 문호사를 통하여, 검인정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1년동안 일선 교사들이 지도교재로 알맞은 과학교과서의 구성때문에 고심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12일간의 일정으로 북미주를 study tour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에 대한 많은 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의 과학교육을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그 나름대로의 강점도 있으므로, 급진적인 개혁이 아닌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서서히 탈바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실기와 과정 중심의 탐구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각급 학교에 산재하고 있는 한국의 유학생과 교포 학생들이, 주로 이론과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을 거쳤지만 대다수가 상위 선두그룹에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거론해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획일화된 교육제도를 다양화하도록 해야 하겠다. 중등교육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복선행 제도와 계열을 두어 학생의 진로를 진학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업적 기능을 각자의 소질에 따라 갖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겠다. 미국의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이면서도 공통 이수해야 할 필수과정보다 선택과정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우월성을 살려 월반제를 실시하고, 반면 과목별 유급제를 실시하여, 학년제에 따른 교과 실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두번째로 파행적인 입시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인문고 학생의 목표와 희망이 대학입시에서 고득점을 얻어, 원하는 대학의 좋은 학과에 진학하는 일인데, 어찌 이들이 원하지 않는 교과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인문계 학생들중 70% 이상이 과학을 기피하며,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에서 흥미없는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의미있는 일인가. 입시 성적에 신경 안쓰고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실험실이 준비실과 함께 마련되고, 실험 기자재도 웬만한 실험은 분단 또는 개별 실험을 수행할 만큼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과학교사에게 사무 분장이나 수업시간수 등이 최대한 배려되어야 하겠고, 소규모 학교에서의 상치과목 부과도 배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험조교의 배치는 물론 소모성 자재도 적기(適期)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57**